

[성명]

## 김상호 총장의 책임지는 자세를 촉구한다.

김상호 총장은 입학생 모집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우리대학은 2021학년도 입학생 모집에서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에서도 꼴찌 수준, 4년제 대학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전문대학과 비교해도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 사태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입학생 모집 성적표는 대학의 존폐를 거론할 만큼 충격적이다. 개교 이후 가장 큰 위태로운 현실, 대학 존립의 실제적 위기를 맞았다. 이보다 더 큰 위험과 파국의 핵심은 절체절명의 시기에 현실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캠퍼스의 봄을 즐기라’는 총장이다. 구성원의 고통과 조직의 붕괴 상황에 대해 책임지려는 리더의 상식적 품격도 발견할 수 없고, 난국을 타개할 리더십도 찾아볼 수 없는 총장이 우리대학 위기의 핵심이다.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이다.

총장의 자리에서 입시를 포함한 대학 경영 전반에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마땅히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지난 3년간 겪었던 대학 경영 실패에 대해선 구구절절 언급하지 않겠다. 김상호 총장은 대학 경영자로서의 책임지는 자세로 거취를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올해보다 힘든 내년, 내년보다 더 힘든 내후년을 대비해야 하는 ‘구성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마지막 의무’이며, 총장의 진정한 리더십이다.

총장은 도리를 다하라.

최근 담화문에서 경영 전반의 실패가 본인의 ‘불찰과 무능에 기인’하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당장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리’라고 밝힌 바와 같이, 김상호 총장은 구성원에게 도리를 다하기를 바란다.

2021. 3. 4.

제17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